“모든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안소연

미술비평가

나는 한번도 직접 본 적 없는 그의 작업 <Malah>(2013)에 대한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다가, 그것이 내 몸에 닿는 감각은 어떠할지 그에게 말하면서, 나의 몸을 감싼 어떤 “내부로서의 장소”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평평하고 불투명한, 이를테면 경계 짓는 벽들이 만들어내는 내부 공간이 아니라,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색채의 겹침이 숱한 벽과 모서리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일련의 몸(들)을 감싼 장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내부로서 존재하면서, 짙은 남색의 천[물질]들을 손으로 밀어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 공간은, 투명한 (색채의) 막들이 겹치고 포개어지면서 흐릿한, 점진적으로 그 내부에 놓일 신체의 표면에 닿는, 일종의 네거티브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사방을 둘러싼 (색채의) 시각적 유희와 피부에 파고드는 혹은 (반대로) 나의 피부가 파고드는 촉각적 감각은, 말하자면, 창문 유리창 안으로 들어온 빛과 그 표면에 쌓인 먼지 얼룩들을 집요하게 바라보면서, 몇 개의 손가락으로 신체 꼭대기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휘감는 원인 모를 행위처럼, 시공간의 어긋남 속에서, 그러한 불일치를 견뎌내는 쾌락과 맞닿아 있다.

의미를 규정할 수 없는 단어, “Malah”는, 그것을 음성으로 내뱉는 입의 모양이다. 의미와 소리라는 기호의 실체를 너머, 입 모양, 시각적인 형상으로 (다만) 존재하기를 열망한다.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규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으면서, 언어로 존재하는, 저 신체의 (잠재적인) 형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호명하려는, 그의 상상이다. <Malah>는, <Shashah>(2024)가 된다. 그 불일치는, 두 개의 언어를, 서로 같지 않은 이 두 개의 단어를, 투명한 색채의 막들이 겹친 장소에 포개어 놓은, 어떤 신체(의 감각)에서 비롯됐다.

<Ethereal Breath(Shashah)>(2024)는, 그 장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마치 그것은, 스스로 어떤 형상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기원, 즉 네거티브의 표면을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기원의 장소로서) 동굴처럼, 주형의 장소다. 그것은 선명한 윤곽의 형상을 주조하는 장소가 아닌, 색채와 소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그러한 불일치의 형상들을 숨죽여 드러낸다. 집과 같은 건축도 아닌, 어떤 형상들을 떠받칠 받침대나 벽도 아닌, 수수께끼 같은 장소를 만들어, 그는 임의의 형상들을 그 내부로부터 출현시킨다. 기억, 은폐, 예언, 기대, 소망 ….

오래 전, 반투명한 흰색 천들로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던 <Mollis(몽글)>(2013)은 사뭇 신성한 장소의 분위기를 가졌다. 바닥으로부터 (경계 없는) 벽을 타고 "몽글몽글" 번지듯이 붙어 있는 작은 덩어리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그 장소와 그 안에 들어선 몸들을 매개하며, (모체의 장소처럼) 어떤 기억 혹은 어떤 예언을 상상하게 한다.

흰색 반투명한 임시 처소의 형상을 기억해내려는, <Eleleu>(2023)는 "내부로서의 장소"에서 분리된 어떤 신체(의 파편) 같다. 새것과 헌것의 개념이 지워진, 부드럽고 연약하고 길게 늘어져 있는, 그저 임의의 물질 상태로 존재하려는 것 같은, 이 재료들은, 지속적인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어떤 형상에 다가간다. 수 천 번, 수 만 번, 바늘로 찔리고, 바늘 끝에 연결해 놓은 색색의 실들로 다시 메워지면서, 파열과 봉합을 지속한 끝에, 그 표면에 얼룩과 상흔과 주름을 켜켜이 쌓아둔 채로,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않고, 무언가를, 무언가의 움직임과 고통과 희열과 따뜻함을 기억하(려)는, 형상 그 자체로 존재하려는 속내를 보여준다.

나는 그에게 "사랑의 행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재현도, 규정도 불가능한, 돌봄과 어루만짐으로 충만한, 한 몸이기를 열망하는, 분리된 채 마주한, 사랑의 대상, 상실의 대상, 그것과의 거리, 장소, 그 파편적인 실체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워지고, 태어났다 소멸하는, 그 수수께끼를 매만진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 손에 쥐어준 종이 한 장에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처럼 배열된 글자들이 놓여 있었다.

2024《기울기 기울이기》전시 비평문